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현장 홍보 실시

-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환자 안전을 완성하는 의료현장의 역할' 조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2일 개최되는 '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환자 안전을 완성하는 의료현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의료현장에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알리고 활용을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4.12월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나타난 중대한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질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사망보상금에서 장애보상금, 급여·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4년에는 진료비 급여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속적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25년 까지 총 1,266건, 약 196억원의 보상금을 피해 환자나 유족에게 지급했다.



※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세션에서 의료현장의 관점에서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조명하고 의료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제도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상사례로 보는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의료전문가가 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현재와 미래 ▲법률전문가가 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가치 및 의료진의 역할 등과 같이 임상 전문의·법률전문가의 발표와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장은 “올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12주년을 맞아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고통을 체감하고 계신 의료진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널리 알려 불가피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고통을 정부 차원에서 분담하고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2026년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포스터

담당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책임자	과 장	강영아 (043-719-2701)
		담당자	사무관	김지애 (043-719-2705)





대회일정

사회: 컨벤션홀 A - 이상규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
 컨벤션홀 B - 천정은 (대한의학회 재무이사)

시간		컨벤션홀 A	컨벤션홀 B
08:30~09:00	30'	참가자 등록	
09:00~09:20	20'	[개 회 사]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축 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09:20~10:00	40'	[기조강연] 의사 소명과 의료정책 - 송호근(한림대학교 석좌교수)	
10:00~10:10	10'	Break	
10:10~11:40	90'	[session 1] 한국 전공의 수련교육이 나아갈 방향 - 대한의학회 수련교육 이사	[session 2] 지금 바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의료 정책은? - 대한의학회 지역의료 정책이사
11:40~12:40	60'	Lunch Break	
12:40~14:10	90'	[session 3]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방안 모색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session 4] 기초의학의 새로운 지평: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와 AI의 활용 - 대한기초의학협의회
14:10~14:20	10'	Break	
14:20~15:50	90'	[session 5] 대한민국 Academic Medicine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session 6] 지역의사제도와 의학교육 평가인증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15:50~16:00	10'	Break	
16:00~17:30	90'	[session 7]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환자 안전을 완성하는 의료현장의 역할 - 식품의약품안전처	[session 8] HTA 패러다임 전환: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위한 의료기술평가 -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17:30	-	폐회	

※ 상기 프로그램은 발표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